

중고차 선택에서 관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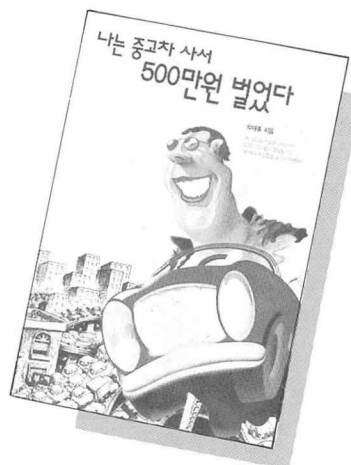
《나는 중고차 사서 500만원 벌었다》
펴낸 박재홍씨

차의 크기나 모양,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형식에 맞는 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는 이번 책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고차의 구입요령, 관리요령, 자동차 구조에 대한 기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중고차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불상사를 피하는 요령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자동차는 ‘실용적 도구’입니다. 이 실용적이라는 말에는 경제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차는 비실용적이고 비경제적인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차가 경제성의 원칙을 배반한다면 없느니만 못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책’ 쓰기에 발벗고 나선 박재홍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씌어진 자동차 매뉴얼을 쉽게 풀어쓴 ‘차종별 매뉴얼 북 시리즈’ 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자동차 실용서들을 출간할 작정이다.

— 허연 기자



이른바 ‘실용서 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실용서들이 서점가에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보 분야별로 특화된 이들 실용서는 그 어떤 책보다 정확한 사실을 깨우쳐주기도 한다.

《나는 중고차 사서 500만원 벌었다》(부·키)의 저자 박재홍씨(36,출판기획가)는 얼마전 같은 출판사에서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알아야 할 몇가지》라는 책을 출간해 관심을 끌었던 인물.

자동차 문화가 확산된 지는 오래지만 이렇다 할 자동차 분야의 실용서는 ‘도로교통지도’가 고작이었던 상황에서 그는 특유의 감각과 기획력으로 실용서의 한 분야를 개척했다.

전세금 주고받을 때 이외에는 5백만원이라는 돈은 구경도 못해봤다는 그가 무슨 근거로 중고차로 5백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 칠까. 그가 처음 차를 산 때는 한 시시월간지 경제부기자로 있던 92년 정확히 70만원을 주고

‘포니 2CX’를 구입한 이래 4년간 중고차를 몰면서 소비한 돈과 동급의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 4년간 소비했을 돈을 비교하면 최소 5백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 예금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벌기는 번 셈이다.

“아직도 자동차가 부와 신분의 상징으로 비쳐지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중고차는 고장이 잘 난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은 편견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알고 잘 고르면 오히려 길이가 잘 든 좋은 차를 고를 수 있어요. 차주가 신경을 안쓰거나 험하게 다루면 새차나 중고차나 고장나기는 마찬가지죠. 결국 주인 하기 나름이지요.”



떠도는 인도의 노래

《꿈꾸는 낙타》펴낸 김우룡씨

김우룡씨(40, 가정의학 전문의)의 본업은 의사이지만 사진작가·여행가·문필가로서도 전문가의 기량을 자랑한다.

《꿈꾸는 낙타》(행림출판)는 그의 다방면에 걸친 재능이 잘 드러난 결정체다. 61장의 사진과 29편의 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색다른 인도여행기이다.

“사진만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어 글로써 부연한 셈입니다.”

책의 성격도 여행기보다는 여행 사진집에 가깝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찍기가 여인 15년, 94년 8월에는 ‘인도인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개인전도 열었다. 그는 사람 찍기를 좋아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얼굴을 가진 산티, 새벽 날뿔이 시장의 인도 노동자, 레에 있는 라마사원의 주지 스님 등.

김우룡씨는 인도에 세번 다녀왔다. 동남아·캐나다·아프리카·유럽을 두루 돌아봤지만 인도같은 매력을 내뿜는 곳은 없었다. 그가 인도에 세번이나 갔다왔고 다시 갈 틈을 엿보는 이유는 단순히 “인도가 좋아서”다. 인도는 인도 그 자체일 뿐이지 다른 수식어는 필요없다고 말한다. 또한 인도는 서구식의 근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견해를 인용해 미국에서 자동차에 쓰이는 하루치의 에너지 소비량이 인도 소 먹이의 일년치 에너지량보다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더구나 소에 쓰인 에너지의 효율은 100%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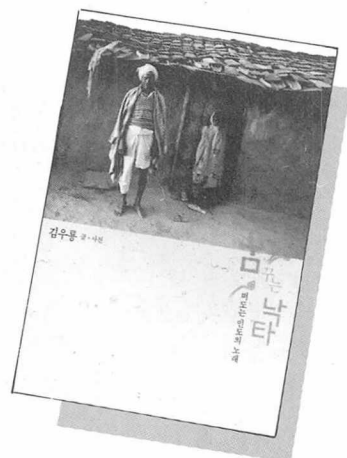
김우룡씨는 어디에 가장 저렴한 교통편과 잠자리가 있는지 아는 베테랑 여행가다. 여행전문가로서 해외배낭여행자를 위한 조언은 “공부하고 가라”는 것이다. 헝가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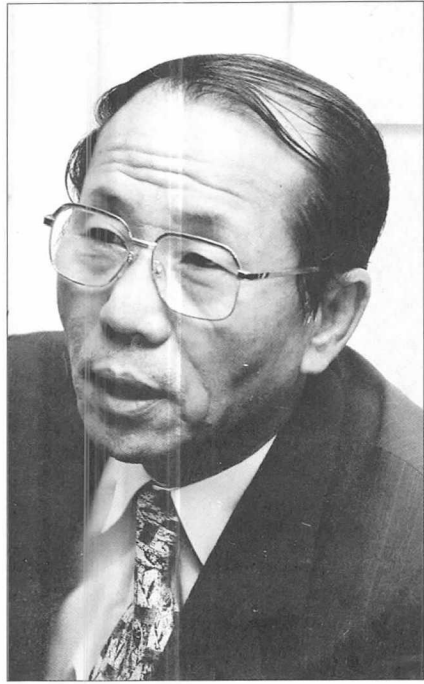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지도를 읽을 줄 몰라 찢찢때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봤기 때문이다.

사진을 보조하는 산문은 대부분 수필형식이나, 몇 편은 소설형식을 띠고 있다. <누란의 사랑> <인도의 어부> <라지푸트의 춤> 등이 그것. 아름다운 처녀 누란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낚는 인도양의 어부가 되기도 한다. <라지푸트의 춤>은 사막의 여인으로 변신해 성장한 딸을 씻기며 세월을 반추하는 환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대 사람과 나누고 싶었던 반복된 독백을 책으로 구현한 것이 《꿈꾸는 낙타》라고 자평하며,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 사진공부를 더하고 싶고, 기회가 닿는 대로 몽고·티벳에도 다녀올 생각이다. 인도에는 일년 정도 장기체류하면서 구석구석까지 훑어보고 싶다고.

“후지와라 신야나 폴 브랜튼의 인도여행기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 인도이야기로 차츰 바뀌었으면 합니다.” 김우룡씨의 소망은 우리의 해외여행 풍속에 일대전환을 촉구한다.





‘화장실’에 얽힌 이야기 모음

《호모 토일렛》 펴낸 이상정씨

똥이나 배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금기다.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동화장실 설치 전문업체인 무림교역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정(62)씨가 최근 펴낸 《호모 토일렛》(진화기획)은 누구나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피하는 ‘화장실’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호모 토일렛’은 인간이야말로 ‘화장실’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장은 10년 가까이 수집한 자료와 현장취재,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화장실 문화의 총론’을 펼친다.

그가 가장 먼저 털어 놓는 이야기는 ‘화장실’의 역사.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이 생긴다. 가장 오래된 화장실 유적은 인도의 모헐조다로에서 발견됐다. 일종의 수세식 화장실.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배설물 처리 방법도 흥미를 끄는데 특히 동아시아의 분노를 퇴비로 이용한 방법은 ‘오수’의 문제가 심각한 요즈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화장실에는 문이 없고 인도인들은 꼭 왼손을 사용해 뒤를 닦는다는 등 이회장이 직접 취재하여 촬영한 사진을 곁들인 각국 화장실의 풍속도도 관심을 끈다.

임금이 곤룡포를 펼치고 앉아 변을 보던 매화들, 얼마전까지만 해도 ‘똥’을 돈주고 퍼갔다는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도 새롭게 읽히고 돌 혹은 모래, 물, 나뭇잎, 밧줄 등 다양한 ‘뒤뉠기’ 요령들도 재미있게 읽힌다.

“똥하지 않게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하여 여의도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다가 문득, 저 많은 사람들이 생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의문이 일더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동화장실’을 들여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뒷 일’을 성공적으로 치뤄내게 했던 이 회장은 “화장실이야말로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강조한다.

이동화장실 변기 속에 깡통, 빈병, 젓가락 등 각종 쓰레기를 집어 넣어 분노 처리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는 이회장은 “이제 우리의 화장실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스로 ‘화장실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화장실 실태를 구석구석 살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볼 생각이다. ‘한국의 요강’도 그가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 박남정 기자



‘총독부’ 건물의 역사적 상징성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펴낸 허영섭씨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허영섭씨는 지진제(地鎮祭)부터 정초식, 상량식, 낙성식 과정을 되도록 담담하고 냉정하게 그리려 했다. 이것은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망언이나 독소유권 주장 등 사안이 있을 때만 들끓고 그뿐인 경박한 세태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이 책에서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불타버린 후 내내 시련을 겪어온 경복궁의 역사를 되짚어 지금은 되돌이킬 수 없는 전통 건축의 모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다.

“개인적으로는 총독부 철거를 반대하지만,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의 영향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주 기자

“조선총독부의 존재여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됐지만 ‘조선총독부’라는 건물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제대로 숙고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의 건립 결정부터 낙성식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한울)를 출간한 허영섭씨(40,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의 말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916년부터 10년동안 진행된 조선총독부 건립은 그 자체가 일제 강점기인 36년 세월을 대변하고 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서북쪽 중턱 언덕받이의 통감부 자리 대신 경복궁 앞에 부지를 선택한 것부터 일본의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허영섭씨는 총독부 건물 그 자체가 5천년 역사를 이루어온 민족 정기에 박은 굵은 쇠뿔이라고 말한다.

암록강변에서 스무해 이상 자란 소나무를 1만여주나 베어내 그 가운데 9,388개를 총독부건물 땅다지기에 썼고, 건축의 편의를 위해 경복궁 부속건물을 마음대로 부렸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일본의 ‘日’자로 보이도록 설계한 총독부 건물과 짝을 이루도록 ‘本’자 모양으로 지은 경성부 청사는 이 땅을 저들의 식민지로 영원히 지배하려 한 의도가 역력하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일본인도 잘 모르는 고문(古文)을 해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접할 때마다 해도 너무 했다 싶어 울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식민통치를 만방에 확고히 알리는 자리였던 1915년 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고 임금만 앉을 수 있었던 용상에 천연덕스럽게 앉던 테라우찌 총독을

